

‘일류’ 대기업, 법 위반 수백건...안전의식은 ‘삼류’

광양제철 최근 2년 1300건 적발 가스폭발·추락사고 등 잇단 사망 정부, 근본대책 모르쇠 일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필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300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가 200건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8명이나 숨지면서 대기업의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6월과 2020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친 근로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만에 3명이 숨지는 대형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감독(광주일보 1월4일 6면)까지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광양제철소를 ‘하청 사고사망인율 높은 원정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빈발한 산재사고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기도 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재 사망사고 문제는 하루 이를 문제가 아니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2018년~2020년 까지 3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결과 13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감독이 실시될 때마다 똑같은 위반사항이 수백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양제철의 안전대책 의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2019년 6월 니켈추출 주변 용접작업 중 잔

류가스 폭발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로 인해 여수지청의 기획감독이 있었다. 감독결과 총 455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221건이 사법처리되고, 과태료 167건에 1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67건의 시정지시도 내려졌다.

2020년 7월 설비 점검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다시 감독이 실시됐다. 총 200건의 위반이 발견되고 35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해 11월 산소밸브 폭발로 인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이번에는 광주노동청이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총 7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문제는 근로감독이 실시될 때마다 법 위반이 수백 건씩 적발되고,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면서도 같은 문제들이 적발된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지연,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검진 지연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상태가 불량한 점이 확인됐다. 또 기초적인 안전간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 부적정, 방폭지역 방폭 기능 불량 등도 적발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이어 12월 실시된 기획 점검과 특별 점검에서도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똑같이 적발됐다. 특별한 전보건교육도 여전히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는 산업재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도 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분야(안전보건전문가 200명 투입, 안전전력 사무국 신설, 중대재해 위험시설 안전장치 보완 등)에 향후 3년간 1조 10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대책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 특별대

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을 실시해 적발과 시정명령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근로감독도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질적인 근로가 이뤄지는 현장을 감독해야 하지만, 그동안 근로감독은 서류상의 감독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노동계가 지적해 불시 점검, 야간 점검 등을 추가 실시해 적발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산업 안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면서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새해 첫 업무는 전통시장 방역 4일 오전 남광주시장에서 광주 동구청 주민안전과 직원들이 전통시장 특별방역을 하며 신속한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수요자 맞춤형 ‘난임지원사업’ 확대

양방시술비 지원 신설

전남도가 저출생 대응시책 중 하나인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형 난임부부 양방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남상까지 추가했다.

‘전남형 난임부부 양방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소진한 자에 대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연 2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 정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했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기준 정부사업으로 전남지역에는 1798건의 양방 시술이 지원됐으며, 이 중 625건(35%)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역 한의원과의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침, 뜸 등 방요법을 지원해 임신을 돕는 사업이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여성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 3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54명(18%)이 임신에 성공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부부인 경우 여성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정서적인 지지와 심리 전문상담, 우울증 예방·치료를 위해 2018년부터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장수 학교들, 인구절벽에 사라질 위기

개교 100년 이상 초·중·고 12곳 학생수 6000명서 수십명대로

광주 지역에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가 10여 개에 달하고, 이중 일부는 학생수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학교’는 서석초, 중앙초, 삼도초, 수창초, 송정동초, 송일중, 수피아여중, 수피아여고, 자연과학고(옛 농업고), 광주제일고, 송일고, 광주여상, 등 12개 교이다.

서석초는 1896년 11월 개교해 올해로 125주년을 맞아 최고령 학교다. 이어 중앙초가 1907년 6월 문을 열어 올해로 114주년을 맞는다.

이들 학교 외에 올해 개교 90년이 넘는 학교는 비아초, 광주여고, 지산초, 임곡초, 대촌중앙초, 광주동초, 전남여고, 송학초, 효동초 등 9개교다.

하지만 ‘장수학교=명문’이라는 유명세 속에서도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폐교 위기에 몰리는 학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구도심 초등학교로 도심 공동화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존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서석초·중앙초·삼도초·수창초 등은 1970~1980년대 전체 학급수 90개 가량에 전체 학생수 5000~6000명에 달했지만 현재 서석초는 전체 학급수 9개·전체 학생수 152명, 중앙초는 전체 학급수 6개·학생 수 32명에 불과하다. 삼도초도 전체 학급수 6개·학생수 48명, 수창초는 전체 학급수 6개·학생수 69명에 그쳤다.

다만 유서 깊은 중·고등학교들은 초등학교와는 달리 전체 학생수 400~7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수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폐교 위기를 단순히 공동화 현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해 교육체계 전반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구도심에 있는 일부 학교의 수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를 살려 부활을 모색하고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서구, ‘동물 찾길 사고’ 처리 전담반 야간·휴일 운영

광주 서구는 이달부터 야간·휴일에도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를 당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전담반을 운영한다.

그동안 서구는 야간·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하는 로드킬 현장 처리를 당직 근무자가 민원을 접수받아 직접 처리해 왔다. 그러나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하는 로드킬 현장 처리에 대한 당직 근무자의 심적 부담이 크고, 청사 방호·긴급 상황대기 등 본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야간 출동은 업무가 서툰 당직 근무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구는 현장 정비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로 환경 관리원으로 구성된 동물사체 처리 전담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당직 근무자들의 고충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속한 현장 처리로 행정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유기 반려 동물과 길고양이가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차량에 치인 동물 사체는 종종 2차 사고를 유발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